

백두의 기상으로 인민을 이끄시는 령도자

국제사회계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

【지금 조선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백두산에로의 답사열풍이 전례없이 세차게 불고있다. 백두의 눈보라는 살을 배는듯 한 눈가루, 얼음가루의 돌풍이 천지를 휩쓰는 말그대로의 칼바람이다. 이런 칼바람을 맞아 헤치며 과거 조선백두산들이 일본군과 싸웠다. 그들이 지녔던 결사의 의지와 굴함없는 공격정신, 백두 산에서 태어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고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최상의 경지에서 계승해나가는것은 김정일영도자의 확고부동한 의의이다.】

맛으며 항일선열들이 지녔던 백설불굴의 혁명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한생의 재부으로 간직하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의지와 굴함없는 투쟁정신은 국제사회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백두산위인청송국제추진위원회, 스위스주재사상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정은원수께서 몸소 백두 산에서 오르신것은 조선혁명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김정은원수께서는 백두 령봉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부닥치는 난관과 도전들을

을 과감히 짓부시며 달음쳐 오신 간고한 전투적행로들과 격변의 나날들을 뜨겁게 새겨보셨다. 그의 백두산군마행군은 사회주의건설에 펼쳐나선 조선인민을 보다 새로운 승리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인디아신문 《라이프 유립》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천만인민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시며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고계신다고 전하였다. 모르니야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에는 전체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감으로써 선대수령들의 유훈대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사상이 담겨져있다. 누구든 로작을 읽어보든 라면 조선이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 어떻게 강국의 지위를 고수하고 빛내어올수 있었는가를 잘 알수 있을 것이다. 북부시계 솟아오르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인듯 이 나라 북변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백두성산에 올라 그 장쾌한 경관을 부강한 방글라

데슈군정정치연구소 조 위원은 백두산에 뿌리를 둔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 하는것을 백두산정에서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고 토로하였다. 베네수엘라공산주의청년중앙리사회 총서기는 조선방문의 나날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을 목격하면서 그 불멸의 힘에 대해 느낄수 있었다. 적대세력들이 무서워하는것은 조선의 막강한 군사력이기에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며 전체 인민의 정신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백라루세 조선인민의 친우협회는 인터넷홈페이지

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초강도제재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국가건설을 진행 하고있는 조선의 모습이 만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느 나라 같으면 당장에 붕괴되거나 손을 들고 나갔겠지만 조선은 더 역세게 솟아오르며 자기가 선택한 길로 나아가고있다. 조선의 신비로운 음은 이 나라를 이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강한 정신력에 기인된다. 나 이 제 리 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진

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력사의 온갖 시련을 뚫고 백승만을 아로새겨온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사상의 힘이 무한대하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사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조선인민 정신력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게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 하였다. 조선에 기본 사람들은 난관에 굴하지 않는 이 나라 인민의 정신력에 대해 먼저 말한다고 하면서 로제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이르프즈 크볼로그스프루》는 조선인민은 비상한 정신력으로 적대세력들의 극단적인 고립압살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탈리아국제그룹 리사장은 조선인민이 자기의 녀으로 체현한 백두의 혁명정신은 오로지 승리만을 향해 전진하는 앞으로의 공격정신이라고 격찬하였으며 아랍사회부흥당 중앙지도부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만년시련을 헤쳐나가는 주체조선의 공격정신을 열렬히 찬양한다고 성명 하였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 전국협회 부위원장장은 제국주의세력의 끈질기게 가혹한 압살책동속에서도 힘차게 돌진해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정신에 탄복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로제야 포름도서출판사 책임주필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수천t의 시멘트 생산보장 - 상원시멘트련합기업소에서 - 상원시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이 평양종합병원건설용시멘트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집합 이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생산 돌격전으로 일평교생산실적을 종전의 110%로 끌어올리면서 수천t의 질 좋은 시멘트를 병원건설장으로 보내 주었다. 일꾼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생산자대중을 총력기시켰으며 각종 원료, 연료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 들었다. 생산현장에서 종산투

은 거레가 소원하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자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자주주의 원칙은 민족문제 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 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형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 문제는 남의 힘을 빌어서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 력사는 외세가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를 오히려 해결해준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것도 외세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한사오 가로막아온것도 다름아닌 외세이고 그 추종 세력들이다.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것

을 달가와하지 않는 침략적인 외세는 항상 남조선과 그 주변에 최첨단살인전쟁장비들을 전개하고 남조선호전 세력과 야합하여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소동들을 벌여 놓으면서 겨레의 높아가는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족의 리익이 참혹히 유린당하고있는 오늘날의 국제현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겨레로 하여금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

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조선민족이 사는 모든 곳에서 통일에죽운 동을 보다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자주통일위업실현을 가로막아나서는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사대매국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누구나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겨레가 가는 성스러운 통일려정에서 자주는 변함없는 표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다. 신기복

통일려정에서 변함없는 표대



《인민천국의 멋진 별세상》

오늘날 지구상에는 령도와 인주수를 자랑하는 나라도 있고 높은 경제성장을 뽐내는 나라도 있고 방대한 군사력을 시위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공화국과 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는 나라는 없다. 언제나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는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세인의 찬란을 받고 있다. 《행성에서 가장 값고 매력적인 령도자로 찬사를 받게 시는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멋, 그것은 한마디로 인민에 대한 사랑이다. 환하게 웃으시는 그의 미소에 마음이 풀리

고 하시는 말씀마다에도 저도 모르게 운뉘이 끌리게 된다 것이 조선인민의 공통된 심정이다. 그의 미소에서 조선인민은 최고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의 약동에 넘치는 헌지지도에서 더 좋은

매일을 확신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가 멋진 분이시니 조선도 세상이 감탄하는 인민천국의 멋진 별세상으로 되고있다.》(로제야의 인터넷신문)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진정한 애민정치를 펴나가신다. 인민의 리익

을 최우선, 절대시 하시는 그이께서는 건물을 하나 지어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그들이 편리해하는가를 물으시

출발점으로 하고있다.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는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도 제시하시었다. 인민의 존제가치를 이처럼 신성시하고 절대적으로

를 떨어리는데 그의 정치철학의 특징이 있다. 그의 인민사랑,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치철학은 조선사회 의 믿음을 그려잡고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불러일으키고있다.》(에 필드신문 《알 아흐바르 알 파피》)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본사기자